

연기에 음반까지 욕심 박보검 새동지는 어디?

YG 자회사 더블랙레이블과 접촉
빅뱅 태양 등 소속 계약여부 궁금
드라마·영화 제작사들 물밑작업
임상춘 작가 신작 본격 출연논의

'박보검을 잡아라.'
톱스타 박보검(30)이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4월 30일 해군 만기 전역한 이후 이렇다 할 신작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그는 최근 새 소속사를 찾는 등 연기 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예계에 데뷔한 2011년 이후 영화와 드라마 출연에 전념해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가수로서도 대중을 만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도 다지고 있다.

박보검은 이를 위해 최근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더블랙레이블과 접촉하고 있다. 더블랙레이블은 그룹 원타임 출신 프로듀서인 테디가 설립한 회사로 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 전소미, 자이언티, 쿠시 등 힙합 가수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 2016년 설립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배우와 전속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박보검은 음반 작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해당 소속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는 연기와 음악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소속된 회사를 폭 넓게 찾고 있다. 박보검은 명지대 영화무지컬학과를 거쳐 상명대 뉴미디어음악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만큼 음악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키워왔다. 앞서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 OST를 비롯해 '별 보러 가자',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올 마이 러브' 등 여러 장의 싱글도 발매했다. 가장과 피아노

연주의 특기를 살려 2020년 8월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 건반 파트에 합격해 복무했다.

박보검이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나온 이후 두 달여 만에 움직이면서 방송가 안팎에서도 그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작 논의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박보검이 새 회사로 자리를 옮겨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드라마·영화 제작사들이 때를 놓칠세라 사극, 로맨스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제안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KBS 2TV '동백꽃 필 무렵' 임상춘 작가의 신작 '인생'(가제) 등 물밑에 올랐던 작품들의 출연 논의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가 입대하기 전에 모두 찍어놓은 영화 '원더랜드'는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박보검은 연예 활동과 별개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전역한 직후 가장 먼저 10년간 후원해온 한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화제를 모았다. 18일에는 힙합 듀오 지누션의 멤버 선, 배우 윤세아 등과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르기 봉사에 참여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배우 박보검이 새 소속사를 물색하면서 그의 행보에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연예뉴스 HOT 5

하우스룰즈 멤버 안지석, 마약 혐의로 적발



안지석

일렉트로닉 그룹 하우스룰즈 멤버 안지석(40)이 마약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청장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안지석을 포함한 10명을 구속·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지석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를 5회 매수하고 미성년 자녀가 사는 제주도 소재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며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적발 당시 대마 148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안지석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안지석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븐틴, '봉봉이체' 폰트 판매 수익금 기부

그룹 세븐틴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 26일 소속사 플레디스에 따르면 세븐틴은 '봉봉이체' 폰트 판매 수익금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교육 취약층을 위해 기부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교육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1700원 이상 기부자들에게 폰트를 배포한다. '봉봉이체' 폰트는 세븐틴 공식 응원봉에서 착안한 캐릭터 '봉봉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국·영문 서체다. 폰트 구매자들이 기부하는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구촌교육나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이브 아메리카 단독 CEO에 스쿠터 브라운



스쿠터 브라운

미국 연예 기획자 스쿠터 브라운이 하이브 아메리카의 단독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의 미국 법인이다. 26일(한국시간)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기존 윤석준 하이브 글로벌 CEO와 하이브 아메리카 공동 CEO였던 스쿠터 브라운이 홀로 하이브 아메리카를 이끌게 됐다. 스쿠터 브라운은 하이브의 박지원 CEO와 함께 지난해 '2022 버라이어티 500'에 뽑혔다. 이는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세계 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500인 리스트다.

뉴진스 신곡 2곡 모두 빌보드 '핫 100' 진입

그룹 뉴진스의 신곡 2곡이 모두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올랐다. 26일(한국시간) 빌보드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뉴진스의 신곡 'OMG'의 수록곡 '디토'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1계단 상승한 85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차트에 들었다. 앨범 타이틀곡 'OMG'도 91위로 진입했다. '디토'는 '글로벌'(미국 제외)과 '글로벌 200'에서 각각 8위, 10위를 차지하며, 두 차트에서 3주 연속 '톱 10'에 들었다. 'OMG'는 '글로벌 200'과 '글로벌'에서 각각 13위, 14위에 랭크됐다.

박효신, 글러브엔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로브)의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A씨가 글러브를 상대로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러브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로 글로브가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1억 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역시 방탄소년단...국내 유일 '100억 회 스트리밍' 신화 썼다

(누적 121억 회)

멜론, 국내의 스트리밍 기록 발표

'유일무이'한 그룹이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억 회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한 가수로 선정됐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각종 신기록을 써 내려갔던 방탄소년단이지만,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 국내의 아티스트의 스트리밍 기록을 집계해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최다 앨범 판매량으로만 흥행 파우어를 과시하는 줄 알았던 이들이 스트리밍으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26일 멜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유일하게 100억 회 이상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누적 스트리밍은 121억 회를 넘겼다. 멜론은 데뷔 후 현재까지 10억 회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하면 '밀리언스' 클럽, 발매 후 24시간 동안 1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앨범을 축하하는 '밀리언스 앨범' 등으로 나눠 분류했다. 멜론은 "밀리언스' 클럽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하게 100억 회 이상 스트리밍을 달성해 '다이아' 클럽 멤버로도 이를

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룹 활동은 잠시 중단했지만, 솔로 활동 중인 일곱 멤버들은 전원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멤버 전원이 솔로로 '핫 100'에 이름을 올린 것은 케이팝 역사상 이들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앞서 발표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역주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26일(한국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28일자)에 따르면 '프루프'는 전주 120위보다

6계단 오른 114위를 기록했다. 멤버 지민이 가수 태양과 호흡을 맞춘 '바이브'(Vibe)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76위로 첫 진입했다. 리더 RM이 지난달 발표한 첫 솔로 음반 '인디고'도 '빌보드 200'에서 193위에 올라 6주째 차트에 진입했다. 제이홉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솔로 음반 '잭 인 더 박스'는 '월드 앨범' 7위, '톱 커런트 앨범' 9위, '톱 세일즈 앨범' 14위에 각각 올랐다. 막내 정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림러스'(Dreamers)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1위, '글로벌'(미국 제외) 108위, '글로벌 200' 173위에 올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랑이 아빠에서 파이티어로...추성훈 '제2 전성기'

넷플릭스 '피지컬:100' 존재감 과시 SBS '순정파이터'에선 격투기 알려

'노장의 힘!' 이종격투기선수 출신 방송인 추성훈(48)이 방송가에서 '사랑이 아빠'가 아닌 '파이터'로서 제2의 전성기를 펼칠 태세다. 최근 체력 경쟁을 소재로 한 서바이벌 포맷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덕분에 딸 사랑이와 출연한 2013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미지를

깨고, 이종격투기를 대중에 알리는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1, 2화가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피지컬: 100'이 대표적이다. 추성훈은 철봉 매달리기, 공 뺏기 등 다양한 미션을 통해 최고의 피지컬을 뽑는 프로그램에서 100인의 참가자 중 한 명으로 출연하고 있다. 스켈레톤 윤성빈, 체조 양학선, 봅슬레이 강한 등 다양한 종목의 20~30대 선수들과 경쟁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 넣어 초반부터 존재감을 과시했다. 시청자들은 베테랑으로서 여유와 열정



추성훈

을 잃지 않는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1화 철봉 매달리기 미션에 돌입하기 전에 주변 참가자들에게 "철봉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안아들듯 매달리면 훨씬 쉽다"며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면 등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추성훈은 "격투기 시합에서도 나이 어린 친구들과 끊임없이 싸운

다"면서 "이 나이에도 젊은 친구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싶다. 아저씨 무시하지 마라"며 경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채널A '천하제일장사' 등 스포츠 소재의 예능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한 그는 최근 방송 중인 SBS '순정파이터'로 이종격투기 소재를 지상파 방송사로 끌어들었다. 이종격투기를 알린다는 목표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홍보 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소속사인 본부이엔티 관계자는 26일 "최근 방송가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작되면서 많은 예능 제작진의 섭외 문의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